

“ 겸손의 길 ”

■ 이종윤 원로목사

그리스도의 제자는 겸손과 순종의 덕성으로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순종은 어려운 일이다. 사랑과 믿음이 없는 순종은 굴종이나 위선이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됨은 험난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은 길이다.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닦으신 주님의 섬기는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그의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한 이들이 질투하며 다투었다.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전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간청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어린아이같이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겸손은 섬김에 우선된다. 어린아이나 노예처럼 낮아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길 수 있다. 우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네 개의 짐을 던져버려야 남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다.

첫째, 교만의 짐(the burden of pride)을 던져 버려라. 겸손은 교만의 반대어다. 우리를 공격해 온 사람에게 우리의 교만한 반응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가? 자신을 작은 왕으로 여기고 자신을 우상처럼 왕처럼 처신하고 대대하기를 바라지 않았던가. 자기를 비방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한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은 자기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교만의 탈을 벗어버릴 때 가능한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사도 바울은 성경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께 굴복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어 사람 앞에 큰 자로 설 수가 있었다.

둘째, 위선의 짐(the burden of pretense)을 벗어버려라.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있는 것을 숨기려 하는 위선의 짐을 버려야 겸손해진다. 사업에서 조금 성공한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처럼 우쭐거리며 행세하려거나 자신을 선하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다. 지식은 짧고 경험도 미천한 이가 더 많은 교육과 경륜을 쌓은 이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 한다면 꼴불견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인이 못되었으면서 문화인인체 외모를 꾸미고 행세를 하려는 위선자는 겸손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진실이 없고 빈수레처럼 잡소리만 낸다. 자신이 실제로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장을 한다. 자신이 정모에 어둡고, 신앙생활 철학도 없는 미숙한 사람, 세련되지 못한 사람 취급받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문제는 자신은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우리는 부패했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없이 안 할 말을 하고, 해서는 안될 일도 한다고 핑계를 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참회하고 부복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죄는 다른 사람 앞에 죄를 감추고 목을 곧게 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이미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올 때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 해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외식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될 것이다.

셋째, 인위적인 짐(the burden of artificiality)을 벗어 던지라. 외식과 비슷하지만 실은 다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강한 체하는 진실이 결여된 이에겐 겸손이 없다. 인위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한다. 십자가는 사실이다.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속이는 것과 악은 소멸되어야 한다. 진리 앞에 겸손하고 사실 앞에 정직해야 한다.

넷째, 자기성취를 위한 투쟁의 짐(the burden of self-struggle)을 벗어버려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인정받기 위해 자신과 투쟁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교만에서 흘러나온 자기 성취를 위한 노력과는 다르다. 자기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 즉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야 겸손해진다. 교만, 위선, 인위적 꾸밈, 자기 성취욕에서 벗어나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시작할 때 따르기 어려운 겸손의 길을 예수님처럼 걷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예배로 드리며, 찬양예배 시에는 2022년 홍해작전 개전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 홍해작전이 시작됩니다.

홍해작전 새벽기도회는
6월 6일~18일까지 오전 5시30분에,
20일~25일까지는 오전 5시에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올해 주제는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 입니다.

2022년 홍해작전을 통해
나라와 서울교회 및 각 개인과 가정 앞에 놓인 홍해를 말씀과 기도로 마른 땅같이 건너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605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

■ 고린도전서 12:1-11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첫 추수를 감사하는 맥 추절이었습니다. 둘째, 출애굽 후 시내광야에 도착한 기간이 대략 50일이었습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 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을 기념 하는 것이 오순절의 의미였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마가다락방 신앙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바른 믿음도, 온전한 교회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 16:13)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신앙의 경도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1.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바울은 바르고 절제된 성령체험을 강조했습니다. 1)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해야 하고 2)전도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며 3)교회의 질서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첫째, 믿음이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3절) 믿음의 내용도 은혜이지만 믿음을 얻는 과정도 은혜일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 즉 예수님이 민족의 해방자가 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입니다. 이런 오해가 사라지고 예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이 형성된 것은 성령 감림 이후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다고 하셨는데, 믿는 것도 인식하는 것도 시인하는 것도 모두 성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찾고 바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 2. 일치하게 하시는 성령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4-6절)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재능입니다. 직분은 교회 제도를 통해 주시는 봉사의 직책입니다. 사역은 구체적 섬김의 내용입니다. 은사는 영적인 것이지만 직분은 제도적인 것입니다. 은사만 강조하고 직분을 소홀히 하면 교회의 무질서가 초래되고, 제도만 강조하고 은사를 소홀히 여기면 교회가 권위주의와 인본주의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역이 없으면 요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어 짙혀 불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는 다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점입니다. 둘째, 성령역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침, 능력, 예언, 분별, 방언, 통역입니다. 모든 은사가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니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우리를 한 몸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례 받고 신앙을 고백한 한 몸임을 기억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시는 일치의 영이십니다.
- 3. 성령의 가장 큰 은사**
 고전 12장은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31절) 일치를 가능케 하는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고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파합니다. 사랑을 감동시키고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존중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사랑으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주님께서 정하신 길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은사는 자기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안용곤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95:1-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5(성령강림)...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184(17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12:1-1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191(42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36:13-15 인 도 자
 찬 송 183(172) 다 함 께
 기 도 현대식 집사
 찬 송 242(233) 다 함 께
 성 경 사 51:1-3 인 도 자
 흥해작전 발대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흥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 ... 설 교 자
 * 찬 송 358(400)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 인도: 김익환 목사
 II부 오후 7시 ·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황금선 권사 II부: 박정희 권사
 성 경 행 23:31-24: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가련한 영혼들 설 교 자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흥해란·김양연·박수강·김복화2

설 교 손달익,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교 회 소 식

모임

1. 흥해작전 본부회의 / 5일(주일) 오후 12시20분 802호
2. 스테반 체육대회 / 6일(월) 오전 7시 교회 출발 8시 아가페타운 도착
3. 정기당회 / 8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402호
4. 8교구 모임 / 11일(토) 새벽기도회 후 8층 식당

알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이번주 심방 일정
1-3, 6-6, 4-5, 5-7, 8-6 다락방
13. 흥해작전 / 2022년 흥해작전이 2022년 6월 5(주일) ~ 6월 25일(토) 18일간(주일 제외) 계속 됩니다.
흥해작전 새벽기도회는 6.6(월)-6.18(토)일은 새벽 5시30분, 20-25일은 특별새벽기도회로 5시에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국가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흥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 강사: 손달익 담임목사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박호연	5-8	시온찬양대	김순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4. 세례식 신청 마감 - 금년도 두번째 세례식인 6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6월 19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교육 : 6월 12일(주일) 오후 1시 602호
 - 세례 문답 : 6월 12일(주일) 오후 2시 609호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결 혼
 1. 이수복 군(이광용 성도, 이명옥 성도의 장남) 김보연 양(7교구 김시환 집사, 김정란 권사의 장녀) / 6월11일(토) 오후 5시 KR컨벤션웨딩 컨벤션홀(02-2632-2600) /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셔틀버스 운행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553명	400명	1,953명	431명	1,810명

사람을 고쳐야

사람에게 훌륭한 제복을 입고 아름다운 장식품을 달아 품위를 높이고 위풍을 당당하게 보이게 할지라도 인간의 심성이 병들고 부패해 있다면 시들어 버린 잡초처럼 악취와 독소만을 뿜어내게 마련이다.

민주화도 필요하고 경제성장이나 민족의 동질성 회복도 바람직한 것들이지만 아담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로 오염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한 세상은 더욱더 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간을 성숙한 성도가 되어 사욕을 좇기보다는 공익을 우선하고 편협 된 이기심보다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자기 교정에 겸손히 힘을 쓰도록 하자.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결유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일성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